

# “전주 에코시티 학교신설 국회 차원 대응”

### 정동영 국회의원 도교육청 방문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 신도심 학교 신설 추진 활기

정동영 국회의원이 7일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하고 전주 에코시티 등 개발지구 학교 신설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환 전주시장도 전북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과 IT팀을 구성키로 함에 따라 전주 신도심 학교 신설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 당, 전주병)은 7일 오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주 신도심 학교 신설을 위해 2월중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심 학교 신설이 세종시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4월 중앙투자심사 전에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학교 설립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물론 지자체-정국회의 협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전주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는 전체 1만3천여세대 중 7천4백여 세대가 2019년 입주 예정이며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가칭)전주 숲내초등학교 1개



7일 김승환 교육감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에코시티 개발지구 등 신도심 학교 시설과 관련된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교 뿐이다.

도교육청은 입학 규모를 감안할 경우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1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설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재검토 결정이 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과 8월 2차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학교 분산 배치, 신설 대체 이전계획 구체화 등을 들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이전 설명

회와 주민 공문조사를 실시했으나 학교 구성원과 전주시민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학교 신설이 사실상 난관에 빠진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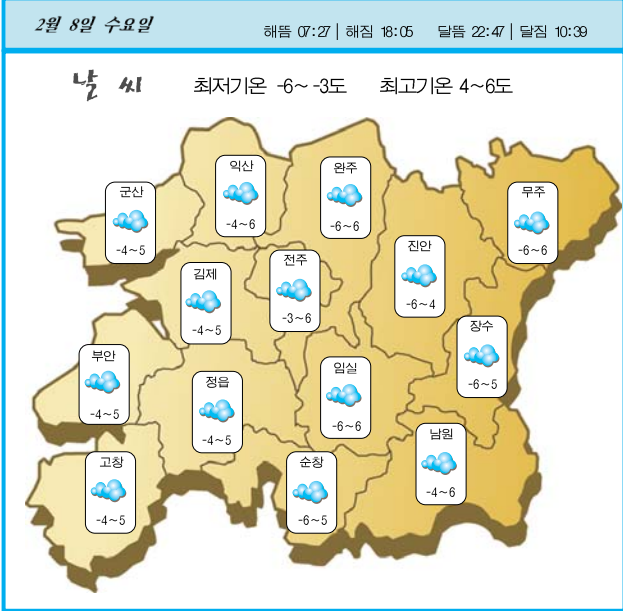
도교육청은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에코시티 개발지구내 중학교 1교와 초등학교 1교 신설을 재차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공동 IT팀은 정차면과의 협력, 교육부 설득 작업에 속도감 있게 나설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현행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정책 철회할 것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재정 절감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학교통폐합 등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고 있으나 지역 갈등과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정해은기자



## 전주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진행

전주시가 농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전주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7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농촌지도자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가치산업 전주농업 육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이상기후 등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 신기술 소개 및 새해 달라지는 농정시책 등 농업인이 알아야 할 공

통과제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시는 또, 이날 교육을 통해 쌀 수급 문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농업 신기술 보급과 봉사활동 등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온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전주농업을 만들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대학과 품목별 상설교육, 정보화·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농업인의 능력배양 및 농업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추억의 졸업식 엄숙함 사라지고 축제의 장으로’

### 도내 초·중·고 졸업식, 공연·연극 등 흥겹고 다채롭게 진행

이달 들어 도내 초·중·고교에서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딱딱한 틀에서 벗어난 축제와 공연이 결집된 특색 있는 졸업식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열리는 한영여중은 공식 행사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학생들의 축하공연을 결집해 축제 졸업식으로 꾸민다.

학교장 축사와 졸업장 전달 등 공식 행사는 간소하게 마친 뒤 졸업생인 3학년들의 뮤지컬이 펼쳐진다.

대중가요 가사를 바꿔 3년간의 학교생활과 영성을 결집한 공연이 울려지고 12학년 후배들의 답사 형식의 댄스와 비올린 공연이 진행될

다. 졸업생은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천개의 바탕이 되어, 어머니의 마음 스승의 은혜를 합창한다. 김제 황산초교도 10일 졸업식을 학습표회와 겸해 치른다.

조선시대의 성균관 졸업식을 떠올리게 하는 ‘황산초 고유례’를 내걸고 3학년 졸업생들이 준비한 연극 공연이 상연된다.

재학생은 무용 합창, 악기 연주 등 공연을 선보이고 학생들의 자작곡인 ‘마음 빛깔, 나를 닮은 풀이 합창’도 한다.

원주 봉사중학교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이 학교 이문용 교장선생님은 졸업생 2백13

명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한다. 담임교사들은 떠나는 졸업생들을 께안아 주고 재학생들은 댄스와 보컬 등 축하공연을 준비했다.

학부모들을 테이블로 모시고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하는 졸업식도 있다. 완주 남관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학부모들을 테이블로 모셔 8년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9명의 졸업생들이 직접 감사패 문구를 만들어 부모님께 전달한다.

김제 난산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수확한 법쌀로 떡을 지어 나눠 먹는 졸업식을 갖는다.

병설 유치원과 공동 졸업식을 갖

는 이 학교는 학부모가 기준 6백평 규모의 논에서 수확한 쌀을 소포장해 각 가정에게 나눠주고 남은 쌀로 떡을 지었다.

이리 삼성초등학교는 20년 후 시간여행을 떠나는 졸업식을 가진다.

9월 11명이 졸업하는 이 학교는 특색 있는 졸업식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 20년 후의 시간여행 졸업식을 마련했다.

졸업생들은 20년 후인 34살, 자신들의 희망하는 직업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고 머리가 하얀 교장, 담임 선생님을 초청해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정해은기자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협력대학 실무자 워크숍

전북대학교 등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대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3차년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실무자 워크숍이 6~7일 양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사업 선도대학인 전북대와 협력대학인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사업추진위원장, 자치평가위원, 실무 담당자 및 프로그램 운용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참가 대학들은 전북도와 연계한 해외 현지 유학생 유치 공동 해외 유학생대회 및 입학설명회 추진, 전북지역 공동 한국어 교재 개발 등 3차 년도 기간 동안 이뤄낸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 대학들은

각 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1년 동안 수행한 사업의 부족한 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등 자체 평가를 하였고 4차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5개 대학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컨소시엄을 지속 발전시켜 해외 우수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 및 관리, 이력관리를 통한 교육과정 공유, 지자체 및 지역기업체의 공동 현장실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북출입국관리사무소 주재부 팀장을 초빙하여 전북 지역 유학생 출입국 관리 및 비자프로그램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으며 전북지역대학과 유학생 관리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해은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사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